

2012학년도 숭실대학교 논술 모의고사
논술 모의고사 문제지(인문계)

고등학교명		학년-반-번호	- -	성 명	
-------	--	---------	-----	-----	--

※ 주의사항

- ① 답안지에 제목과 소제목을 달지 마시오.
- ②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마시오.
- ③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표시(“ ”)를 하시오.
- ④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본문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 ⑤ **연필 또는 흑색필기구**만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그 이외 색 필기구는 부정행위에 해당).

문제1 제시문 (가)에 나타난 현대사회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경쟁이 갖는 가치와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800자 ± 80자, 40점)

(가-1)

현대의 삶에서 가장 심층적인 문제들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독립과 개성을 사회나 역사적 유산, 외적 문화 및 삶의 기술의 압도적인 힘들로부터 지켜내려는 요구에서 유래한다. 이는 원시 인간이 육신의 실존을 위해 치러야 했던 자연과의 투쟁에서의 마지막 단계에 속한다. …(중략)…

니체는 개인의 처절한 투쟁이, 사회주의는 일체의 경쟁의 제거가 개인이 완벽하게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았던 것 같다. 어느 경우든 이 모든 것에는 동일한 근본 동기가 작동하고 있다. 다른 아닌 사회적·기술적 메커니즘 속에서 평준화되고 소모되는 데 대한 개인의 반항이 그것이다. …(중략)… 전형적인 대도시인의 인간관계와 업무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보통이다.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결과 그들의 관계나 활동들은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약속이나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정확을 기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는 수습하기 어려운 혼동 상태로 붕괴될 것이다. 만약 베를린에 있는 모든 시계 바늘이 단 한 시간 동안이라도 느닷없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베를린 전체의 경제적 관계와 그밖의 모든 관계는 오랜 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외적인 요소로 보일지는 모르나, 대도시에서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다리거나 헛걸음질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를 의미하게 된다.

(가-2)

전통적 경제체제에서는 시간이 풍부했고 계절이 바뀌는 경우에만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해야 할 일들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생활은 사람들 고유의 페이스에 알맞게 조급하지 않은 속도로 전개되었으며, 모든 사람은 무리하거나 서두르지 않는 참을성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경제체제는 시간을 상품화한다. 시간마저도 팔거나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시간은 수량화되었고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졌다.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졌고 사람들은 생활의 속도를 더욱 빨라지게 만드는 시간절약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중략)…

변해가는 라다크 사람들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놀랄 만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현대세계의 생활도구와 기계들이 그 자체로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지만 그것들을 사용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새로운 생활은 전체적으로 시간을 빼앗아가버리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개발의 결과로 도시 지역에 사는 라다크 사람들은 활용 가능한 기술의 속도에 의해 경쟁을 해야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나)

There is good evidence that productivity in the workplace suffers as a result of competition. The research is even more compelling in classroom settings. David Johnson, a professor of social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and his colleagues reviewed all the studies they could find on the subject from 1924 to 1980. Sixty five of the studies found that children learn better when they work cooperatively as opposed to competitively, eight found the reverse, and thirty six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more complex the learning task, the worse children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fared.

Brandeis University psychologist Teresa Amabile was more interested in creativity. In a study, she asked children to make "silly collages." Some competed for prizes and some did not. Seven artists then independently rated the kids' works. It turned out that those who were trying to win produced collages that were much less creative—less spontaneous, complex and varied—than the others.

<뒷면에 계속>

One after another, researchers across the country have concluded that children do not learn better when education is transformed into a competitive struggle. Why? First, competition often makes kids anxious and that interferes with concentration. Second, competition does not permit them to share their talents and resources as cooperation does, so they cannot learn from one another. Finally, trying to be Number One distracts them from what they are supposed to be learning. It may seem paradoxical, but when a student concentrates on the reward (an A or a gold star or a trophy), she becomes less interested in what she is doing. The result: Performance declines.

(다)

피렌체 공화국의 기수이자 용병 사령관이었던 피에르 소데르니는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도시의 옛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전에 도시를 떠났던 예술의 거장들을 불러들인다. 레오나르도가 1500년 피렌체로 돌아오자 시민들은 뜨겁게 환영해 주었다. 미켈란젤로는 자질구레한 주문만 받아 입이 잔뜩 부어 있다가, 인기를 만회할 기회를 찾았다.

피렌체 시장 소데리니의 예술가 고용 프로그램-고대 그리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기는 했지만-은 사실상 유례없는 엄청난 규모였다. 소데리니가 품고 있던 또 한 가지 계획은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에게 경쟁을 붙여서 뛰어난 예술 작품을 생산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시청사의 마조르 콘실리오 홀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는 벽에다 벽화를 그리는 일이었다. 원래는 서로의 재능에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두 예술가였지만, 막상 대놓고 둘의 작품을 비교하게 된다고 하니 잔뜩 열이 올랐다. 나이가 위인 레오나르도로 말하자면 거장이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대리석을 한 차례도 깎아 본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청동 조각이라면 세상에서 으뜸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했다. 한편, 미켈란젤로는 정치계의 실력자를 후원자로 두고 있는 데다 두말 할 나위 없이 최고의 솜씨를 자랑하는 거장이었다. 그가 피렌체로 돌아온 것은 일자리를 찾는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 주려는 욕심이 컸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경합할 작품은 프레스코 그림이었는데, 두 그림 모두 피렌체가 전쟁을 치르면서 거둔 승리를 다루어야 했다. 레오나르도는 1440년 피렌체와 밀라노 사이에 벌어졌던 앙기아리 전투를, 미켈란젤로는 1354년 피렌체와 피사 사이에 일어난 카시나 전투를 그리게 되었다.

1504년 라파엘로가 피렌체에 도착한다. 이로써 르네상스 전성기의 위대한 천재 셋이 마침내 한 도시에 모인 것이다. 라파엘로의 나이는 이제 스물 하나. 시청사 벽면 프레스코를 그리기 위해서 두 거장이 남긴 밑그림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소문은 벌써부터 듣고 있었다. 라파엘로는 신중하게 관찰하고 착실하게 배우는 성격이었다. 그는 레오나르도의 작품을 보면서 공간 속에 등장인물을 짜 넣는 법과 색채를 자연스럽게 녹여 넣는 법을 익혔다. 또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소묘만 보아도 기운이 넘쳤다. 소용돌이 구성이나 피라미드 구성의 기하학적 형식 속에서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라파엘로는 우르비노와 피렌체를 오가면서 많은 작품을 쏟아 낸다. 부유한 상인 아놀로 도니의 초상화를 보면 레오나르도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2 제시문 (라) · (마)의 요지를 바탕으로 소통의 본래적 의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제시문 (바) · (사)에 나타난 소통 매체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1000자±100자, 60점)

(라)

한자 교(交)는 ‘나와 남과의 대화적 관계 맺음’을 함의한다. 교배(交拜)는 두 사람의 맞절이요, 교수(交手)는 둘의 손잡음이고, 교우(交友)는 벗들 혹은 벗된 이인 것이다. 교역(交易)은 물건의 매매요, 교합(交合)은 둘이 뜻 또는 육체를 하나로 합함이고, 교분(交分)은 서로 사권 정인 것이다.

그러나 교(交)는 사람의 선의 · 호의에만 기초하는 관계맺음, 선의 · 호의에만 기초한 특정 존재 형식은 아니다. 즉 모든 교(交)가 친교인 것은 아니다. 교(交)는 우정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함의하나 그것만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교(交) 없이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존재론적 본질 또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본질적 성질은 사람의 필연적 ‘교(交) 지향’에 있다. ‘교(交) 지향’은 만인에게 공통된 것이요, 본능적인 것이요, 존재론적으로 만인에게 정위(定位)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직관에 의해 본능에 의해 알고 있다. 사람의 행복은 바로 교(交)에 있다는 진리를, 사람의 생물학적 · 문화적 생존은 교(交)에 기초한다는 것을. 사람의 모든 바쁜 일, 즉 비즈니스 역시 그 기초는 교(交)다.

(마)

의학 · 생화학 · 물리학 등을 두루 섭렵한 과학자 그리핀은 생명체의 몸을 보이지 않게 하는 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핀은 자신이 직접 실험 대상이 되어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신비한 힘과 자유를 의미한다.” 그는 이 세상을 얻은 듯했다.

하지만 그리핀은 ‘나는 타인을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미처 가늠하지 못했다. 그리핀은 실험실에서 나오자마자 ‘투명인간’의 불리한 점을 곧바로 경험한다. 그러나 이런 일상적 불편은 그리핀이 감내해야 할 일차적 괴로움일 뿐이다.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생활할수록 그리핀의 마음과 영혼은 점점 썩어 들

어간다. 이는 그 자신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문제다. 왜 그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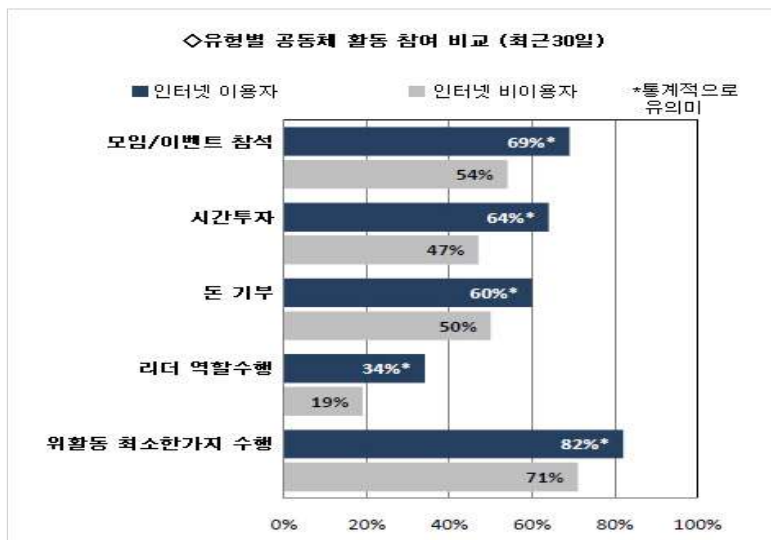
그는 다른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일체의 타자성이 배제된다. 타자성은 상호 노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나는 타인을 온전히 볼 수 있는데 타인은 나를 전혀 볼 수 없고, 나는 타인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데 타인은 나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타인을 원하더라도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관계없는 타자성은 없다.

나는 남을 모두 볼 수 있지만 남은 나를 전혀 볼 수 없다는 ‘일방성’은 이에 머물지 않고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 그것은 바로 그리핀 자신에게 일어나는 무서운 변화이다. 그가 타인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려 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가장 큰 공포이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가장 위협적이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핀은 투명인간이 되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불행히도 이것을 터득한 것이다.

(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폭 빠진 사람들에서 '오타쿠'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페이스북 등을 통한 '온라인 참여'는 강화됐지만, 여전히 개인적이라 인식이 지배적이다. 인터넷에서는 적극 참여할지 몰라도, 실제 오프라인 공동체 활동에는 소극적이라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림 1>



[자료:퓨리서치 센터]

그러나 몇 가지 연구 자료를 토대로 볼 때, SNS 이용자들의 공동체 활동 참여 성향은 이와 다를 수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올해 초 발표한 '인터넷의 사회적 측면(The social side of the Internet)' 보고서에 따르면, 한 마디로 인터넷, 특히 SNS 이용자들이 공동체 활동에도 더 적극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5%가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들로만 초점을 좁힐 경우엔 그 비율이 80%로 늘어난다. 반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참여 비율은 56% 수준에 불과하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이용자들은 공동체 활동 참여 비율이 훨씬 높다. SNS 이용자들은 82%가, 특히 트위터 이용자들은 85%가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

공적 사안에 관해 유명인들이 트위터에 남긴 멘트는 곧바로 신문 지면으로 옮겨진다. 이는 트위터를 통한 소통이 생각보다 수평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언젠가 본 연구에 따르면, 트위터를 통한 소통의 상당 부분이 파워 트위터러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누군가를 ‘팔로(Follow)’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친교’ 관계를 맺는다고 보는 그 사람의 매체를 ‘구독’하는 것에 가까워진다. 여기서 종종 개념의 혼동이 일어난다. 트위터가 ‘사적 친교 관계를 맺는 매체’이자 동시에 ‘공적 여론을 형성하는 매체’라는 이중성을 갖다 보니, 전자의 규범을 그대로 후자에 옮겨놓는 범주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내가 팔로를 했으니 당신도 나를 팔로해야 한다.’ 가끔 이 주장은 이론적 논증을 동반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평등성이라는 트위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트위터를 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두뇌 망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집합적 두뇌에 접속함을 뜻한다. 물론 140자의 한계 내에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단상 · 촌평, 혹은 간단한 문답뿐이기에 트위터로 호응이 긴 사유를 주고받기란 힘들다.

<끝>